



■ '오카리나 광주 마을'



흙과 바람이 만들어내는 자연의 소리에 둘러싸인 마을이 있다.

잔잔하지만 맑고 경쾌한 소리, 가벼운 듯하지만 진중함 넘치는 오카리나의 선율이 은은히 울려 퍼지는 동호회 '오카리나 마을'이 그곳이다.

오카리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 거대한 마을을 이루고 있는 '오카리나 마을'에는 광주 마을도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 이곳에서는 회장 대신 이장이라는 호칭을 사용한다. '오카리나 마을'이라는 동호회 이름처럼 각 지역의 마을을 이끌어 나가고 있다는 의미에서 붙여진 호칭이다.

이들은 전국 회원들이 모이는 신년음악회와 정기 연주회를 통해 멋진 공연을 선보이기도 하고, 여름에는 2박3일 캠프를 가 오카리나 강좌와 오카리나 만들어보기 등의 체험행사를 통해 신나는 추억도 만든다.

이장 박용수(35)씨는 광주지역 회원들의 실력만큼 정이 쌓아가는 따뜻한 마을이 되기를 바란다.

"오카리나의 맑은 소리에 반해서 동호회를 찾는 이들이 많습니다. 모두 초보자 시절이 있었던 만큼 회원들이 초보자 입장에서 오카리나에 대해 지도하고 실력 향상을 도모하기 때문에 스스럼없이 마을을 찾아 오셔도 됩니다. 연습은 물론 함께 밥도 먹고 운동도 하는 가족적인 분위기기도 마을 특유의 문화입니다."

오카리나의 음색은 누구에게나 친숙하며, 누구나 쉽게 오카리나를 배울 수 있다. 그래서 동호회에는 50대의 중년부터 이준영(12)·유진(8) 막둥이 자매까지 남녀노소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자연과 가까운 악기인만큼 날이 좋을 때면 공원에 나가 회원들이 멋진 화음을 쏟아내기도 한다. 이들의 합주 소리를 듣고 관객들이 찾아오기도 하고 동호회에 가입하는 이들도 있다.

마을처럼 포근함을 추구하는 이들은 매주 연습을 하고, 한 달에 두 번 정기 모임을 갖고 개인들의 연주



10월 18일 장성 한마음 학교에서 개최되는 별밤 연주회를 앞두고 맹연습중인 '오카리나 마을'의 서울현(사진 왼쪽부터)·김현섭·정용주·남세중·박용수·주용진씨.

자연의 소리로 마음을 씻어요

10대~50대까지 날 좋을 때면 공원에서 멋진 화음 쏟아내

회장 대신 이장, 정 쌓아가는 따뜻한 마을 이끌어

이달 18일 '전주마을' 사람들과 장성서 '별밤 연주회'

무대를 마련해 신입회원들 기살리기에 나선다.

신입회원 정용주(41)씨도 회원들의 도움으로 오카리나 실력을 쌓아가고 있다. 오는 10월에는 전주마을 사람들과 함께 하는 별밤 연주회에도 나설 예정이다.

정씨는 "TV배경음악이 좋아서 검색을 하다 오카리나 소리라는 것을 알게 돼 의욕적으로 활동을 시작했지만 손가락 움직이는 것도 쉽지 않는데다, 불기는 쉬운데 고운 소리를 내는 게 어려워 고전하고 있다"면서도 "동호회를 통해 즐겁게 오카리나를 배우고 가고 있다"고 밝혔다.

오카리나는 남·녀노소 큰 기술 없이 쉽게 소리를 낼 수 있지만 알면 알수록 어려운 악기라는 게 회원들의 한결같은 얘기다. 하지만 동호회 터줏대감인 서울현(여·34)씨는 복잡·미묘한 만큼 오카리나가

더 매력적이라고 한다.

"원래 피아노를 쳤기 때문에 오카리나를 시작할 때 자신 있었는데 연주를 하면 할수록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알아나가고 배우가면서 더 큰 매력을 느끼게 됩니다. 또 같은 오카리나도 바다나 산 등 장소에 따라서 다른 소리가 나는 만큼 다양한 매력을 느낄 수 있습니다."

중년 파워를 과시하고 있는 김현섭(48)씨는 클라리넷, 색소폰, 기타 등 다양한 악기를 다룰 수 있는 만능 음악인이다. 김씨는 폐관(閉管)악기인 오카리나의 매력에 대해 얘기한다.

"오카리나는 폐관악기로 공명에 따라서 소리가 나는 것입니다. 통 전체의 울림으로 소리가 나는 것이기 때문에 손끝에서 느껴지는 울림이 오카리나 고유의 소리만큼이나 매력적입니다."

부인이 구입해 놓고 방치해둔 오카리나를 대신 연주하게 됐다는 김씨는 독학의 한계를 느껴 찾은 동호회를 통해 음악 세계는 물론 인간 관계도 넓혀 나가고 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악기 하나쯤은 배워야 한다는 생각으로 동호회를 찾은 열혈남아들도 있다. 남세중(31)·주용진(27)씨가 그 주인공들이다.

남세중씨는 30대에 해양일 종 하나가 '악기 배우기'라는 책을 읽은 뒤 악기를 시작하게 됐다.

"우연히 도자기 문화축제에서 오카리나를 접하고 그 소리에 반해 시작했는데, 악기를 다룰 수 있게 된 것은 물론 다른 이들과 함께 공연도 하는 색다른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주용진씨는 악기를 배우보겠다는 생각을 실천하기 위해 지난 1월부터 동호회 활동을 시작했다. 조선대학교 원자력공학과 졸업반인 주씨는 학업에 대한 부담도 있지만 무언가를 배우나간다는 도전 정신으로 동호회 활동을 병행하고 있다.

"단순한 악기라고 생각해 시작했는데 생각보다 어렵고 복잡합니다. 하지만 쉽게 가지고 다닐 수 있다는 간단함과 편리함이 매력적입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사진=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 오카리나는?

흙으로 만든 관현악기 오리형·앵글리형 나눠

오카리나(ocarina)는 이태리어 oca와 rina의 합성어로 작은 거위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거위를 닮은 모양이라는 뜻에서 생긴 이름이지만 오카리나는 흔히 형태에 상관없이 흙으로 만든 관악기를 의미한다.

오카리나는 나라·형태·재료·윤지법 별로 다양한 기준에 의해 다양한 분류가 가능하다.

오카리나는 모양별로 10~12개의 구멍이 있는 오리형과 4~8개의 구멍을 가진 동그란 앵글리형으로 나뉜다.

앵글리형은 음역이 도에서 높은 미까지로 낮은 라에서 높은 파까지의 음역을 가진 오리형 오카리나보다 음역이 좁아 실제 연주에서는 많이 사용되지 않으며, 유럽쪽에서 교육용으로 많이 사용된다.

키 별로는 베이스·테너·알토·소프라노로 구분되며 가장 많이 쓰이는 키는 알토 C·소프라노 SG·SC이다. 베이스나 테너는 합주 같은 특수 목적으로 사용되며 크기가 클수록 낮은 소리가 난다.

악기의 뾰족하게 튀어나온 부분을 입으로 물고 불며 손가락으로 구멍을 막았다 열었다 하여 소리를 내는데, 소리가 부드러우며 우아하기 때문에 널리 애용되고 있다.

흔히 초보자들에게는 10만원 대의 알토 C가 적합하다.

흙으로 만든 수공예 제품이 많은 만큼 가끔 오카리나가 깨지기도 하지만 취구에 문제가 생긴 경우가 아니라면 제작사를 통해 수리가 가능하다.

'오카리나마을' 박용수 이장은 "개인마다 호흡량도 다르고 손가락 길이나 크기가 달라 운지에도 차이가 난다"며 "개인의 차이와 선호하는 음색을 고려해 자신에게 맞는 종류의 오카리나를 선택하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푸른호수, 푸른숲속
전원주택단지 선착순 본격분양 개시

자연IN

화순 서성리 전원주택마을 분양사무소 (062)553-9870

아이엘리시아 www.ailasia.com

상품권 판매 등산차, 각종 포일 및 행사(5000원, 10000원) 판매

062)671-1199